

일상  
日常,  
위  
요  
감  
圍  
繞  
感

코로나로 이어지는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 컨택트, 언컨택트를 논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때론 사물과 어떻게 (distance, density) 관계를 맺어야 할지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나를 에워싸는 일상에 대해서.....'

일상(日常), 특별함이 없는 매일의 루틴이 반복된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는 하루 속에 아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다. 차를 내리고 책을 읽으며 아침을 준비하는 마음, 커피 한 잔과 나윤선의 재즈를 들으며 마시는 한 잔의 와인으로 삶의 여백을 만들어간다.

위요감(圍繞感), 건축에서 위요감은 무엇에 둘러싸여 느낄 수 있는 감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적당한 유대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번 전시는 공간적 언어인 위요감을 사람과 사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시작되었다.

거리와 밀도를 통해 사람과 사물에 적당한 위요감을 제공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제안이지 싶다.

느슨해져야 하는 공간의 밀도와 친밀해져야 하는 사물과의 관계를 Art Archive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획자 최주연

총괄 기획 | 윤현상재 Space B-E

협력 디자이너 | 임태희디자인스튜디오

협업 브랜드 | SLOW PHARMACY, TWL

협찬 | 지복득마루

참여 작가

강석근, 김남희, 김규, 김민욱, 김준수, 남미혜, 류연희, 바다디자인아뜰리에, 배주현, 백경원, 빈컬렉션, 수오

안나리사 알라스탈로, 안문수, 유남권, 유태근, 윤세호, 이윤정, 이정우, 이진주, 이찬우, 임서윤, 정현지, 최근식

최희주, 파이브콤마, 허유정

Enclosure  
by YOUNGHYUN

# 일상 日 常 , 위 要 감 圍 繞 感

## 01 윤현정원 | Gathering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뉴노멀이 되었다. 거리두기로 인해 분주함에 지나치고 복잡함에 묻혔던 일상의 소중함과 평범함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뉴노멀 시대의 공간의 가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첫 번째 여정인 윤현정원에서는 타일로 만들어진 정원에서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건축적 위요감이 있는 공간을 제시한다. 윤현정원에서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타일로 만든 놀이터'

- 타일, 자연 그리고 사람 -

## 02 나의 소우주 | Surroundings

"나의 하루를 에워싸는 일상에 대해서....."

아침은 내가 온전히 깨어 있으며 내면에 새벽이 깃드는 시간이다.\* 새벽 빛소리로 시작하는 하루를 상상해 본다. 빛소리를 음악 삼아 월든을 읽으며 차 한 잔을 내리는 여유는 고단한 일상을 견뎌 낼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릇에 담긴 작은 정원을 즐기는 것으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하루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테이블 위 나의 소우주, 5:30 am'

- 차 한 잔, 책 한 권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중에서

## 03 친밀한 사물들 | Belongings

물리적으로 멀어진 사람간의 거리만큼 우리는 주변에 사물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늘 존재 했지만 지나쳐 가던 것들을 발견할 때 느끼는 친밀감일까? 소중해지면 소중히 다루게 되고, 소중한 것에는 특별한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릴 적 보물상자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소중한 것들의 함을 만들어 준다.

위요감(圍繞感), 나를 에워싸는 그리고 사물을 에워싸는.....

평범하여 지나쳤던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시간을 회고하며 어느 시인의 글귀처럼 주위의 사물을 통해 세상과 사랑에 빠져보자.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 1 pm'

- 함(函), 잔, 도구들 -

## 04 일상의 여백 | Breathing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들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연을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선물들이 지닌 고유한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연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더 기쁜 것이다. 나는 내 기쁨의 원천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들로 내 바구니를 가득 채우기를 좋아한다." \*

'엄마의 정원에서, 5 pm'

- 수레국화, 사포나리아, 바늘꽃, 데이지, 향등골, 작약 카모마일, 층층이, 라벤더, 추명국, 찔레꽃, 베베나, 딜, 니겔라 그리고 바람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일기」 중에서

## 05 적당한 거리 | Solitude

팬데믹 상황의 거리두기를 차치하더라도 인간은 원래 사회적 존재이기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거리 조절을 하며 살아간다. 지금 이 시대에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두기가 아닐까 싶다. 적당한 거리 사이에 고독을 즐기는 시간을 두어보면 어떨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조력자, 11pm'

- 술(酒), 와인, 재즈 -

\*헨리 데이빗 소로우, 「고독의 즐거움」 중에서

## 06 뜰(庭) | Garden of mind

아주 평범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우리의 삶에 다시 밝은 기운을 넣기 위해 소박했던 각자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법정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내 속의 뜰을 잘 가꾸자'는 말을 제가 좋아해요. 속 뜰을 잘 가꾸려면 끊임없이 사색하고 책을 많이 읽고, 잘 읽고, 삶을 긍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의 뜰에서, 7 am'

- 초발심\* 初發心 -

\*이해인, 「이해인의 말」 중에서

\*초발심: 처음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는 마음.

### 전시실 평면 Exhibition Plan

